

772

아래 있던 만주국에서 중군위안 소 감독관으로 1년반 동안 근무 했다고 밝히고 위안부들은 대부분 조선인 여성들이었다고 말했다. 그는 조선인 여성들을 정식 대로 끌어들이는 일은 일본군 헌 병이 맡았으며 이들은 무기공장 에서 일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 는 방법으로 여성들을 유인했다 고 폭로했다.

713

말했다.
“나가 토미씨는 폐전후에도
중국에서 활동하다가 중국
인민해방군의 장에 전임되어
13년 뒤 귀국을 받았다고 발
견했다.”
전범수용소에서 자신의 잘
못을 반성했다는 나가 토미씨
는 “내가 지은 죄는 보상을
걸어 없이나 내가 지은 죄를
발방하고 정당한 조사를 마
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.”

中國선 한 사람 1百엔에 사들여

명하고 위안부의 실태를 밝
혀 책임을 어디에 있는지 분
명히 한 후 위안부인권을 회복
에 이 문제를 삼정해야 한다
고 주장했다.

【東京 李東柱를 파견】

【東京 李東柱 특파원】